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589장** **다같이**

1.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지며 어디든지 태양에 향기 진동하도다
〈후렴〉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 합니다 아멘
2.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 주소서
3.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 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4.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참여 하겠네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마태복음 5:13-16(표준새번역)** **인도자**

-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그러면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리니,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다.
- 15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뒷방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 16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설 교 **"언덕 위의 도시 A City on a Hill"**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자녀를 위한 기도(부모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가 성장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2. 부모님을 위한 기도(자녀들)

하나님! 아빠 엄마와 함께 우리 가족이 착한 일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자녀들을 위한 말씀 요약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난 사람들에게서 유래합니다. 청교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언덕 위에 있는 그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도 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신대륙을 찾아 떠나는 길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은 새로운 나라, 모든 사람들이 본을 받아 살아갈 언덕 위에 있는 도시를 꿈꾸며 어려움을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약속을 정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 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첫 열매를 얻은 날을 기념하며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올바르게,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려고 했던 청교도의 믿음과 신앙을 기억하고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언덕 위의 도시 A city on a Hill”

(마태복음 5:13-16)

영국교회가 로마 교황으로부터 독립은 했지만, 가톨릭의 교리와 의식을 상당 부분 수용하자 불만을 가지 열렬한 개신교도들이 청교도가 되었다. 청교도라는 말은 본래 조용하는 말이었다. ‘너희들만 깨끗하냐? 순수하냐?’ 청교도들은 종교적인 자유와 새로운 삶을 위해 1620년 9월 16일 영국을 떠나 신대륙을 향했다. 우여곡절 끝에 11월 21일에 미국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했다. 필그림 파더스에게 펼쳐진 삶은 무척이나 곤고했지만, 1621년 가을 첫 수확물을 거두자 원주민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였다(첫 번째 추수감사절). 유대 절기 중 초막절에서 유래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04년부터 미국 선교사의 가르침에 따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다. ▶“언덕 위의 도시”(A City Upon A Hill)라는 청교도의 비전은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아니라, 10년 후 1630년 3월 영국에서 아르벨라 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출발 예배에서 영국의 존 코튼 목사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대륙에 도착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 때 모든 나라가 우리러보는 “언덕 위의 도시” 같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축복하며 설교한 내용에서 유래하였다. 역사가들은 이 설교가 미국 건국이념이 담긴 문서라 일컫는다. 신대륙에서 청교도들이 어떤 모습의 공동체를 건설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도 원리가 담겨 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신앙적 공동체 이상인 ‘언덕 위의 도시’를 세우기 원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따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언덕 위의 동네(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단지 종교적 박해를 피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상적인 공화국, 전 세계에 영감을 줄 수 있는 모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신대륙으로 건너간 것이다. 언덕 위의 도시의 성패는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달렸다고 여겼다. ‘언덕 위의 도시’는 구호만이 아니라 세 가지 실천 사항이 있었다. 첫째는 개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언약을 강조했다. 언약의 자녀들이 모인 가정에서부터 언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했다. 둘째는 교회도 언약을 맺은 영적인 공동체로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격려했다. 셋째는 세상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공동체로 세울 것을 다짐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임을 강조한 그들의 비전이 오늘날 초강대국 미국을 만드는 원천이었다. ▶영국 국교회는 과거에 강조점을 두었지만, 청교도는 현재와 미래에 방점을 찍는다. 그래서 ②금식일 ③감사일 ①안식일을 강조했다. ①안식일의 엄격한 준수는 청교도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안식일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들은 안식일을 뉴잉글랜드의 영광으로 여겼다. ②청교도들은 삶에서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면 금식일을 선포해서 회개했는데, 1633년부터 1686년까지 55년 동안 172일의 금식일을 선포했다. 그렇게 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③삶의 현실은 어렵지만, 그들은 의도적으로 감사하려 했다. 만신창이가 되어 플리머스에 도착한 메이플라워호 탑승자들은 그래도 감사했다. 1)작은 배였지만 그런 배라도 주신 것에 감사 2)시속 3.2km로 항해했지만 66일간 항해할 수 있었음에 감사 3)항해 도중 2명이 사망했지만 한 아기가 태어났음을 감사 4)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은 것에 감사 5)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된 것에 감사 6)고통스러운 항해였지만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음에 감사. 그들에게 일상이 선물이요 기적이요 기회로 보았기에, 그들은 늘 감사할 수 있었다. 이런 감사 정신을 우리도 본받자.